

큰 스님 수행한담

“사는게 쫘라고요?”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계신품(誠愼品) ②

戒定慧解 계정해해
是當善惟 시당선유
都已離斯 도이리구
無稱徐有 무화제유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
이름 마땅히 잘 생각해서
모든 허물 여의어 버리면
재앙도 없고 없앨 것도 없으리라

善解則度 착해즉도
餘不復生 여불부생
越諸魔界 월제마계
如日清明 여일청명

집착에서 풀리면 그제 곧 제도라
다시는 생겨날게 남지 않으니
온갖 마구니 경계 벗어나서
해탈계 빛나는 태양 같으리라

狂惑自恣 광혹자지
已常外遊 이상외피
戒定慧行 계정해행
求滿勿離 구만물리

날 숨 들 숨따라
온갖 사유작용을 놓치지 않고 갖추
어 살피며
처음부터 끝까지 날카롭게 통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편안하리
라

是則出世間 시즉소세간
如雲解月現 여운해월현
起止學慧惟 기지학사유
坐臥不廢忘 좌와불폐망

이는 곧 시공을 비춤이라
마치 구름 해치고 달이 나타나듯
일어나거나 그치거나 없거나 있거나
생각하고 배우기에 있어지지 않네

比丘立定念 비구립사념
前利後則勝 전리후즉승
始得終必勝 시득종필승
逝不觀生死 서불도생사

비구가 이런 생각 바로세우면
처음도 이롭고 나중에 승승하리니
처음에 얻으면 마침내 승리하여
맹세코 생사에서 벗어나리라

“달이 구름헤치고 나타나 시공 비추듯
항상 한마음이면 번뇌·갈애 벗어나”

미친듯 미혹하고 스스로 방자함을
항상 멀리 피해버리고
계율 선정 지혜의
원만하기를 구하되 여의지 않도록 하라

若見身所住 약견신소주
六更以爲最 육경이위최
比丘常一心 비구상일심
便自知脫離 변자지니원

持戒淨淨 지계청정
心不自恣 심불자지
正智已解 정지이해
不離煩惱 불도사부

혹 이 몸 머무는 곳 보려하면
욕구를 제일로 삼는다
비구가 항상 한마음이면
스스로 열반 경계를 알게되리라

계율지킴이 청정하고
마음이 절로 방자하지 않으면
바른 지혜 이미 깨달은 것
사된 망념따위 보이지 않게된다

已有是證念 이제시제념
自身常健行 자신상건행
若其不如是 약기불여시
終不得意行 종부득의행

是往吉處 시왕길처
爲無上道 위무상도
亦捨非道 역시비도
離諸魔界 이제마계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스스로 항상 순세계 행하나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끝내 마음 공부길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좋은 곳으로 가는것
위없는 도를 행할이니
그런 길을 버리게되니
온갖 악마경계는 사라진다

是隨本行者 시수본행자
如是度愛勞 여시도애로
若能悟意念 약능오의념
知解一心樂 지해일심락

유념품(惟念品) ①

出處入處念 출식입식념
具滿諸善惟 구만제사유
從初覺通利 종초경통리
安如佛所說 안여불소설

이 근본의 수행법을 따르는 이
그리하여 갈애 번뇌를 벗어나리니
만약 공부하는 마음에서 깨닫게 되면
한마음의 열락을 알게 되리라

龍眼

활안스님 (천자암 조실)

“행복하려면 밝아야 합니다
마음도 보고 듣는 것도 밝으면
시비할것이 없습니다”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도 그 생명은
존귀합니다. 모든 생명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천지자연의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을 유지하는 밑받침을 가지고 있고
그 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의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천지자연의 근
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각각 생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을
탓하고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시 한 생명으로 일체중생의 만복이 이
뤄지는 것이고, 흠처가 있으면 보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흠처하면
자신을 버리면 되는 것이구요.

사실 나는 경만한 유년시절을 보내지
는 못했습니다. 13살 되던 해 속가 부친
께서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후 20일만에
어머니도 세상을 뜨셨습니다. 나 역시 무
슨 병인지 몸이 퉁퉁 붓는 바람에 사느
나 죽느냐 할 정도로 시급한 때가 있었
습니다. 소피를 먹으면 살 수 있다는 사
람들의 말을 듣고 장터에 소피를 구하려
다니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른
들이 먹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일체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여동안
온갖 생활고를 겪으면서, 어린 소견에도
천지상현에게 책임을 추궁해야겠다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그 이
유를 묻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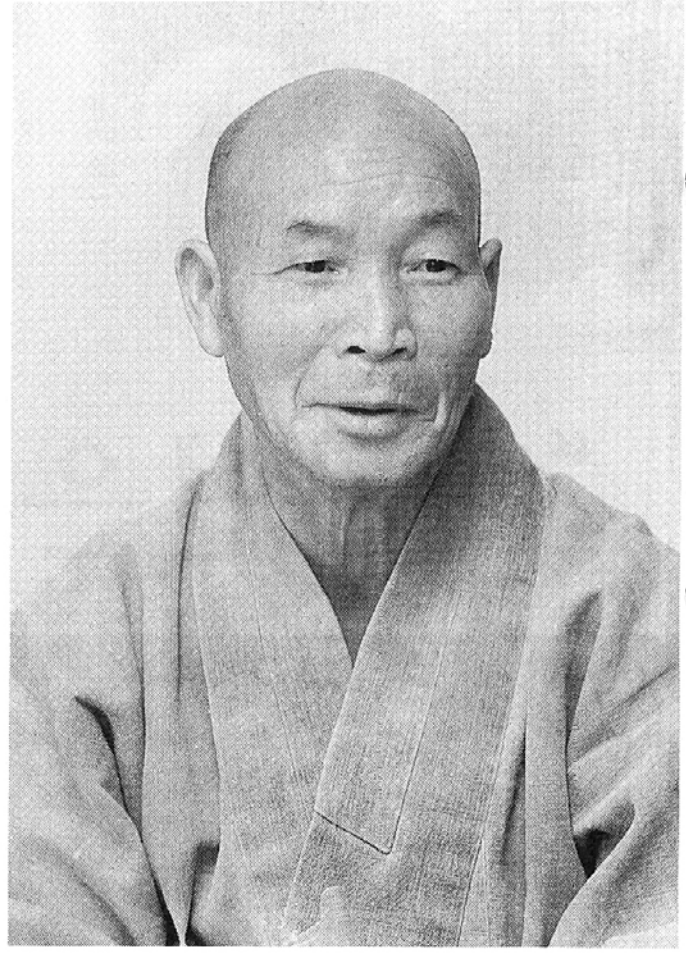
16살 되던 해 함경도 성진의 어느 군
수공장에 취직해 4년간 일하다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
요. 지혜와 학문을 갖추어 내 인생을 바
꾸어 보리라고 결심하고는 20살 되던해
월정사로 발심출가했습니다. 외숙모에
이끌려 간 절에서 석달동안 스님의 법문
을 듣고는 바로 이 길에 내가 가야할 길
이라는 환희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22살
때 월산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고 33
살때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을
때까지 기도와 참선에 정진했습니다.

사는게 고(苦)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생각 돌리보면 그리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
는 것은 말할것도 없이 자신의 행복입니
다. 그런데 행복해지고 싶다고 모두 행복
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마음으로 바라
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뤄지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행복하려면 밝아야 합
니다. 마음도 밝아야 하고, 보고 듣는 것
도 밝아야 합니다. 밝으면 시비할 것이
없습니다. 어두운 탓으로 시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밝기 위해서는 견성대각이 있
어야 하는데, 이 견성대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생산지해입니다. 자신이 못
나고 어려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면 그것은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이 아
니라 자신의 근본자리의 마음이 확실하
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정해지면 노
력하게 되고, 노력이 뒤따르면 아무리 어
려운 것이어도 뜻을 것이 없습니다.

견성도 본인 마음이 정한대로 따라가
는 것입니다. 제불성현도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노력은 지혜를 얻게 하고, 자

- 1926년 전남 담양 생
1953년 월산스님 은사로 득도
1958년 자운스님 계사로 비구계
수지 이후 삼일사 청랑선원, 칠물
암, 범어사, 용화사 등 제방선원
에서 40년간 성만
- 현재 송광사 천자암에서 주석 정진



“禪은 세상사는 이치와 같습니다
마음자리 결정하고 일념으로 노력하면
스스로 느끼고 맛볼 수 있습니다”

연법의 이치를 터득하게 합니다. 선의 요
체가 무엇입니까. 대우주 자연생명의 이
치를 바로보고자 합니다. 생활철학이
명확하면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선(禪)도 여기에서 출
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출가한 이후 오로지 참선수행에
만 매달려 왔습니다. 흔히들 선이라고 하
면 밥나무에다 대나무를 접(接)하는 것
처럼 매우 추상적이며 비(非)세간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은 결코 추
상적인 것도 비세간적인 것도 아닙니다.
선은 참마져 무너지고 우주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이를 위한 노력은
선의 시작인 것입니다. 선의 시작이 이렇
진대 어떻게 선이 추상적이고 비세간적
이 할 수 있는니까.
선가에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
(敎外別傳)이라는 말이 있듯이 선은 언
어나 문자,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은 아닙니다. 어떠한 의식이나 사상으로
여역하게 표현하려고 해도 도저히 표현
할 수 없음을 예나 지금이나 불멸의 원
칙입니다. 여기 하나의 물건이 있다고 합
시다. 그런데 그 물건의 핵심과 경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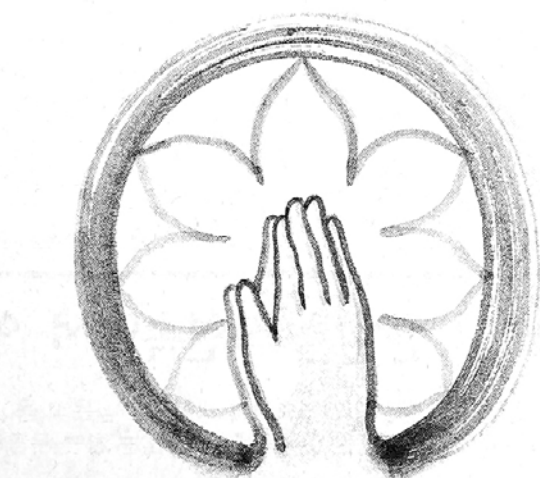
아무리 타인에게 가르치려 해도 불가능
한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느끼고 터득해
자신의 의식과 사상으로 직전하고 체험
하는데서 비로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
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스스로 느끼고
맛보는 것밖에 달리 선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 사는 이치는 선과 다를 것이 없
습니다. 부처님이 되거나 마음을 정하면
얼마든지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한가
지 일에 마음을 정하고 머무르지 않고
실현한다면 거기에 선이 있고, 도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구계를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선수행에 나섰습니다. 전국 각지의 선지
식을 찾아다니며 참문, 참방을 했습니다.
삼일사 청랑선원, 칠물암, 범어사, 용화
사 등 제방 선원에서 40안거를 지내고
구산, 전강, 금오, 향곡스님 문하에서 참
선수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재미
있었던 일도 느낀 것도 참으로 많습니
다. 한 번은 인천에서 한철 안거를 마쳤

생활속의 불교 120

누군들 보시할 형편이 못된다고 하라.

“마음을 기울여 일체를 내 몸 같이 생각
하고 내 이품 같이 생각하며 내 자리와
똑같이 생각한다면 어찌 내 생명 내 것은
아깝고 남의 생명 남의 것은 아깝지 않겠
는가? 그런 마음이 곧 보살의 마음이요
진정한 보시이다.
남에게 어떤 이익을 주었다해도 탐탁치
않은 생각, 짜푸린 얼굴로 주었다면 곧 마
음에 짜푸름이 있었으니 공덕이 되질 못
한다.
또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하고 물질
로 보시한다해도 나의 이익이나 복을 바
라고 했다면 그것은 흥부의 보시가 아니
라 늘부의 보시이니 공덕이 될 수 없다.”
하루를 심어 열을 거두고 열을 심어 백
을 거두고 백을 심어 천을 거두는게 보시
의 공덕이다. 그러나 참다운 보시에는 그
런 계산이 없다. 무주상이기 때문이다. 우
선 대상에 대해 의식하는 바가 없다. 보시
물에 대한 집착도 없다. 내가 보시한다는
생각도 없다. 보시를 했으니 과보가 따로
리라는 기대도 없다. 있다면 오직 내 몸

내 아픔 같이 생각하는 자비의 마음이 있
을 뿐이다.
저 흥부같은 마음이다.
자연은 중생에게 많은 것을 준다. 하나
를 심어 열을 수확하게 해주고 중생이 살
아 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고 길러준다. 그
리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로지 아낌 없이 주고 있을 뿐이다. 완벽
한 무주상인 것이다. 그렇게 산 같이, 물
같이, 바람같이, 태양같이 주는 것이 보살
의 마음자리요 진정한 보시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위
해’ 보시를 한다.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
에 묶여서하고 보시의 내용물에도 집착한
다. 이름을 써서 ‘내가 했노라’ 확인하고
싶어한다. 보시를 했으니 조만간 좋은 일
이 있으리라고 은연 중에 기대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보시의 대가성을 강조
하며 그것을 부추기는 일도 벌어진다. 늘
부식 보시를 권장하는 것이다.
남들은 때 맞춰서 보시를 잘도 하는데



나는 재물이 없어서 보시하지 못한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
못된 생각이거나 핑계이다.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보시할 아
무 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
다. 실사 제지가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물
한그릇, 풀 한포기 없다고 할 사람은 없다.
다만 입은 옷 한 벌 뿐이라해도 옷깃을
짚어 남의 상처를 싸매줄 능력은 있다.
또 육신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 남이 보
시하는 것을 거들어 주고 남이 보시하는
것을 기뻐해 줄 힘은 있지 않겠는가. 부
처님 재세시에 난타라는 노파가 동냥한
돈으로 등 하나를 밝혔다는 빈자일등(貧
者一燈)의 교훈도 있다. 동냥한 기운만
있으면 보시할 힘이 있다.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보시할 힘이 있다.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재물이라도 보시하지 못한다. 늘
부보시 말고는...
생명을 사랑하는 것도 보시다. 용서하
는 마음도 보시다. 스승을 공경하고 부모
에 효도하는 것도 보시오 하심·경양도
보시다. 모임의 화합을 위해 애씀도 보시

요 부드러운 말도 보시다. 슬픔에 잠긴
이를 위로하는 것도 보시행이요 아픈 사
람을 간호하는 일도 훌륭한 보시이다.
굴주리는 이를 보고 내 한끼의 식사를
아껴서 도와주는 것도 보시다.
장애인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길을 묻
는 이에 친절히 가르쳐 주는 것도 보시
행이다.
경전의 가르침 한 구절을 일러 주는 것.
단 한 부의 포교문건이라도 전해 주는 것
도 또한 훌륭한 보시이다.
몸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 보시할 재물
이 없음을 탓하지 마라. 남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을 갖는 것은 직접
보시하는 것과 같다(인과경)고 했다. 자
비심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백천생에 칭보
가 구축하다(지장경)고 했다. 사람의 몸
을 받고 태어나서 어찌 보시할 게 없다고
하라. 몸보시 마음 보시 법 보시가 있음
에야...
협찬 : 민수기·김명숙